

< 발표자료 >

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발효와 시사점

2022. 12. 9.

이 규 석

주요 목차

I. 서론

II.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내용

III. 국내외 대응 현황

IV. 시사점

1 배경

- ◆ 「인플레이션 감축법(Inflation Reduction Act)」 (이하 IRA)은 미국 상·하원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2022년 8월 16일 최종 발효
 - ✓ IRA는 2021년 말 물가상승 및 증세 우려 등으로 무산된 총 2조 달러 규모의 '더 나은 재건 법(Build Back Better, 이하 BBB)'를 수정한 법안임
 - ✓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넘게 추진되던 '더 나은 재건 법'이 과도한 예산 등으로 미국 의회가 반대하자, 미 행정부는 물가상승 억제를 명분으로 친환경 에너지, 기후변화, 보건 등의 부문으로 예산을 축소하여 IRA를 의회에 제출함
 - ✓ IRA는 2022년 7월 27일 문안이 공개됐으며 8월 7일 상원 통과, 8월 12일 하원 통과, 8월 16일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통해 최종 통과됨

1 배경

- ◆ IRA는 미국 내 물가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 해당 내용에는 미국산 전기·대체에너지 차량 구매 시의 세액공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
 - ✓ 미국 시장에서의 보조금 적용을 위한 미국·북미 등 특정 지역에서의 전기차 의무생산과 주요 배터리 광물·부품 조달비율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
 - ✓ 앞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면 전치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·소재 및 완성차 제조업체들에 피해가 예상됨

- ◆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 자국 중심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함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
 - ✓ 최근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이 변화하고 있으며, 세계 주요국은 경제동맹과 자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, 투자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
 - ✓ 세계 주요국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자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전기차, 배터리 등 제조업체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

주요 목차

I. 서론

II.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내용

III. 국내외 대응 현황

IV. 시사점

II.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내용

1 개요

◆ 미국의 IRA는 2022년 7월 27일 문안이 공개됐으며 8월 7일 상원 통과, 8월 12일 하원 통과, 8월 16일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통해 최종 통과

- ✓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된 IRA는 2021년말 물가상승 및 증세 우려 등으로 무산된 총 2조 달러 규모의 '더 나은 재건 법(Build Back Better, 이하 BBB)' 법안을 수정한 법안이며, 궁극적인 목표는 재정적자 감축과 의료비용 절감을 통한 물가상승 억제임
- ✓ 환경 에너지, 보건, 조세 등의 분야에서 총 4,37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미국 내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에 대응 등을 추진

<표 1>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산 규모

(단위: 십억 달러)

수입 항목	금액	지출 항목	금액
15% 법인세	222	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관련 비용	369
국세청 과세 집행 강화	124	ACA 확대 지원 영구화 비용	64
처방약 가격책정 개혁	265	서부 가뭄 복원력 제고	4
자사주 매입 세금	74	-	-
손실제한연장	52	-	-
소계	737	소계	437

II.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내용

- ◆ 동 법에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담겨있는데, 그중에는 미국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음
 - ✓ 친환경 에너지(Clean Energy): 에너지 비용 감소, 친환경 에너지경제 구축, 환경오염의 감소 등이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,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 진흥 추진
 - ✓ 보건(Healthcare): 처방 의약품의 가격 인하, 보건 비용 부담 완화, 제약업계의 영향력 견제를 골자로 함
 - ✓ 조세(Taxes): 조세법의 공정화와 재정적자 감축 추진

<표 2>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주요 인센티브

구분	인센티브
청정 제조 시설	전기차배터리 관련 제조 시설에 최대 30% 세액공제
첨단 제조 시설	배터리·태양광·풍력 관련 부품 생산 시 10% 세액공제
일반 친환경차	북미 내 최종조립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7,500달러 보조금
상업용 친환경차	소비자에게 최대 7,500달러 및 차량가의 30% 세액공제
청정전력 생산·투자	태양광·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 운영·투자 시 세액공제

출처: 산업통상자원부(2022)

II.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내용

2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요건

◆ 세액공제를 통한 미국 내 리쇼어링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 광물·부품 조달비율 충족한 기업에 전기차 신차에 해당 최대 7,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

- ✓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최종 조립 조건, ② 배터리 핵심광물 조건, ③ 배터리 부품 조건, ④ 차종 가격 상한, ⑤ 구매자 소득 상한 등의 IRA 상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함
- ✓ 최종 조립 조건은 전기차의 최종 조립이 북미(미국, 캐나다, 멕시코)에서 이루어져야 함
- ✓ 배터리 핵심광물(리튬·니켈·코발트 등)은 일정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(FTA)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거나, 북미 지역 내에서 재활용(recycled)된 것이어야 함
- ✓ 배터리의 주요부품(양극재·음극재·전해액 등)이 북미에서 제조되는 비율이 50% 이상이어야 함

〈표 3〉 핵심광물 역내조달 비율

'24년 이전	'24년	'25년	'26년	'26년말 이후
40%	50%	60%	70%	80%

II.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내용

2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요건

〈표 4〉 주요부품 역내조달 비율

'24년 이전	'24년~'25년	'26년	'27년	'28년	'28년말 이후
50%	60%	70%	80%	90%	100%

- ✓ 밴, SUV, 픽업트럭은 8만 달러, 세단 등 이외 승용 차량은 5.5만 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모델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
- ✓ 구매자 소득 상한은 구매자 소득이 부부 합산 30만 달러, 가장 22.5만 달러, 개인 15만 달러 이하에 해당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
- ✓ 제조업체당 한도 조건(업체별 미국 시장 내 EV 누적판매량 20만대까지 보조금 대상) 해제

주요 목차

- I. 서론
- II.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내용
- III. 국내외 대응 현황
- IV. 시사점

III. 국내외 대응 현황

1 한국

◆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실무급 협의 지속

- ✓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국내 자동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실무협상 진행 중: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 제안
- * 한편,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래피얼 워녹(민주당)은 '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 (Affordable Electric Vehicles for America Act)'을 2022년 9월 29일 발의하였으며, 동 법은 IRA이 담고 있는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을 3년 유예하는 것을 포함
- ✓ IRA가 미국 전기차업계만 유리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WTO 제소 방안 검토
- * 그러나, WTO가 항소기구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에 따른 조치는 전무하며, 입법을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해 현실적으로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많지 않음

III. 국내외 대응 현황

1 한국

◆ IRA 관련 한. 미 협의 추진 현황

- ✓ 2022년 8월 29일, 산업부. 기획재정부. 외교부 등 실장급 정부 대표단이 미국 방문
- ✓ 2022년 9월 5일, 한국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(USTR) 대표와 만나 양자 간 협의 채널 구축에 합의
- ✓ 2022년 9월 16일 오전,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개최해 현대차, 삼성SDI, LG에너지솔루션, SK온, 한국자동차산업협회,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업계의견수렴
- ✓ 2022년 9월 16일 오후,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한. 미 정부 간 실무협의를 시작
- ✓ 2022년 10월 20일,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'제34차 한미 재계회의 총회'를 개최하였으며, IRA의 차별적 요소는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미국의 IRA 등 무역차별 조치 개선 요구
- ✓ 2022년 10월 20일, 한국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캐서린 타이 무역부(USTR) 대표와 전화 회담을 하고,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와 관련해 협의 지속

III. 국내외 대응 현황

2 주요국

〈표 5〉 주요국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현황 정리

국가명	대응 현황
한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한미 양국 간 실무협의 지속•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 제안• WTO 제소 방안 검토
EU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EU 집행위원회(EC)는 미국 무역대표부(USTR)에 IRA의 차별 우려 제기• WTO 제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옵션 검토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한국을 포함한 뜻을 함께하는 동맹국들과 지속 협력
중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공급망 재편 다각화 시도• 중국 기업들은 리튬배터리 공급망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IRA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, 칠레, 호주, 멕시코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원료를 구매, 제조 공장 건설,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 생산 추진
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일본 도요타가 강력한 '미국 정계 로비'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, 상대적으로 진입이 늦은 전기차 시장을 회복할 기회로 활용• 도요타 자동차 미국과 일본에 배터리 공장 설립(약 7조 투자)

출처: 언론보도자료 종합

주요 목차

- I. 서론
- II.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내용
- III. 국내외 대응 현황
- IV. 시사점

IV. 시사점

1 핵심광물 수입 다각화

◆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생산 및 가공 현황

- ✓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광물은 리튬(Li), 니켈(Ni), 코발트(Co), 흑연(Graphite)이고, 중국이 주요 핵심광물의 원광석을 대부분 수입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상품성 금속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
- ✓ ① 리튬: 호주(40%), 칠레(18%), 중국(14%), 아르헨티나(6%) 등 4개국이 약 80% 차지
- ✓ ② 니켈: 인도네시아 76만 톤(30.7%), 필리핀 32만 톤(12.9%), 러시아 28만 톤 (11.3%)로 비교적 여러 나라에 분포 매장
- ✓ ③ 코발트: 콩고민주공화국(DRC)(80% 생산, 95%의 수출), 수출량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
- ✓ ④ 흑연: 중국(69.8%), 브라질(9.7%), 마다가스카르(4.6%), 캐나다(4.0%), 인도(2.9%), 모잠비크(2.1%), 러시아(2.0%), 기타 국가(4.9%) 생산

IV. 시사점

1 핵심광물 수입 다각화

〈표 6〉 전세계 국가별 생산 및 가공 의존도

핵심광물	주 소비	특정 국가 의존도	
		광물 생산	광물 가공
리튬	배터리 양극재	호주, 칠레(77%)	중국(58%)
니켈		콩고민주공화국(71%)	중국(64%)
코발트		인도네시아(32%)	중국(34%)
흑연	배터리 음극재	중국(70%)	

출처: IEA(2021)

〈표 7〉 한국 전기차 배터리 내 핵심광물 수입 국가 및 의존도

구분		1위	2위	3위	기타
리튬	수산화리튬	중국(79.1%)	칠레(15.4%)	러시아(4.8%)	미국 등(0.7%)
니켈	수산화니켈	중국(56.6%)	태국(29.5%)	일본(13.9%)	
코발트	수산화코발트	중국(88.5%)	벨기에(10.5%)	핀란드(1.0%)	말레이시아 등(극소량)
	황산코발트	중국(81.5%)	핀란드(18.5%)	-	-

출처: 무역협회(2021)

IV. 시사점

1 핵심광물 수입 다각화

◆ 전기차 배터리 주요 소재(부품) 현황

- ✓ 한국은 이차전지 핵심소재 산업의 강국이나, 핵심 소재의 원재료가 니켈, 코발트, 수산화리튬, 흑연인 만큼 대외의존도가 심각한 상황
- ✓ 주요 4대 소재(양극재, 음극재, 분리막, 전해액)의 원자재는 수산화리튬(84.4%), 코발트(81%), 천연흑연(89.6%) 등으로 중국산 수입 비율이 모두 80%가 넘음
- ✓ 이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, 2019년 기준 이차전지의 주요 소재 중 양극재 47%, 음극재 80.8%, 분리막 69.5%, 전해액 66.2%가 해외에 의존
- ✓ 이차전지 소재의 원재료인 리튬, 코발트, 니켈 등도 전량 수입에 의존

〈표 8〉 이차전지 핵심소재 해외의존도

(단위: %)

구분	양극재	음극재	분리막	전해액
2019년	47.2	80.8	69.5	66.2
2020년	50.0	77.6	61.5	66.3

IV. 시사점

1 핵심광물 수입 다각화

◆ 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최종 조립 조건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 40% 이상(비율 8%까지 매년 증가) 및 주요부품 50% 이상(비율 100%까지 매년 증가)을 충족해야 하므로, IRA 규정에 부합하는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

- ✓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에 해외 우려집단(Foreign Entity of Concern)으로부터 추출, 처리 또는 재활용된 광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
- ✓ 해외 우려집단으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◆ 배터리 핵심광물 및 양극재, 전해질의 원재료 광물 수입 다각화

- ✓ 배터리 핵심광물은 일정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(20개)에서 공급받거나, 북미 지역 내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함
- ✓ 중국에 대한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수입국의 후보는 칠레, 캐나다, 호주, 아르헨티나 등이 있음

◆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북미 내 공급망 확보 지원

- ✓ 폐배터리를 수거해 미국 현지에서 광물을 추출하면 '미국산'으로 분류되므로, 북미 지역 내에서 재활용된 핵심광물로 조달비율 충족 가능

IV. 시사점

2 가격 경쟁력 확보

◆ 미국 내에서 차별받는 비용을 상쇄하는 지원책 마련

- ✓ IRA가 발효됨에 따라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광물 및 부품 조달을 위해 다른 국가에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기업들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✓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만큼 한시적으로(현지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) 국내 세금, 보조금 등으로 상쇄 방안 모색

◆ 미국 내 자동차 공장 설립 및 생산으로 미국 정부의 보조금 확보

- ✓ 현대차의 조지아주 공장은 10/25 착공하였으며, 약 2년간 미국 정부의 혜택에서 제외
- ✓ 조지아주 공장의 원래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4년 완공하고 2025년 상반기 생산

◆ 한미 정부의 실무협의를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 유예 추진

- ✓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에 2025년까지 IRA 적용 유예를 요청한 상황
- ✓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래피얼 워녹이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을 3년 유예하는 것을 포함한 '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(Affordable Electric Vehicles for America Act)'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

IV. 시사점

3 국내 리쇼어링 기업 지원

◆ 주요국 리쇼어링 기업 현황 비교

- ✓ 한국은 2014년 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한 이후로 2021년까지 단 114개 기업만이 국내로 복귀하였으며, 미국은 같은 기간 6,839개 기업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남
- ✓ 일본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7,633개 기업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남
- ✓ 대만 기업 유턴 건수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364건으로 연평균 약 72.8건임
- ✓ 유럽은 2016~2018년 193개 기업이 리쇼어링을 택한 것으로 나타남

<표 10> 한국과 미국의 리쇼어링 기업 현황 비교

국가명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
한국	20	3	12	4	9	16	24	26
미국	340	294	267	624	886	1,100	1,484	1,844

출처: 산업통상자원부

IV. 시사점

3 국내 리쇼어링 기업 지원

◆ 리쇼어링 정책 개선과 한국형 리쇼어링 기업 지원 방향

- ✓ 세계 주요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리쇼어링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
- ✓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상 리쇼어링 기업의 범위 확장
 - * 한국은 동 법에서 '해외인소싱 → 국내인소싱'의 경우만 인정하고 있음
- ✓ 리쇼어링 확대를 위한 R&D 보조, 세금 감면 등 유턴 기업을 위한 유인책 확대
- ✓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리쇼어링 전략 추진

<표 11> 리쇼어링 종류와 경제적 효과

종류	오프쇼어링→인쇼어링	경제적 효과
1	해외인소싱 → 국내인소싱	해외투자 회수(○), 국내 신규투자(○), 국내 생산(○)
2	해외인소싱 → 국내아웃소싱	해외투자 회수(○), 국내 신규투자(×), 국내 생산(○)
3	해외아웃소싱 → 국내인소싱	해외투자 회수(×), 국내 신규투자(○), 국내 생산(○)
4	해외아웃소싱 → 국내아웃소싱	해외투자 회수(×), 국내 신규투자(×), 국내 생산(○)

자료: 김종규, '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', 입법조사처(2020), 한경연 재정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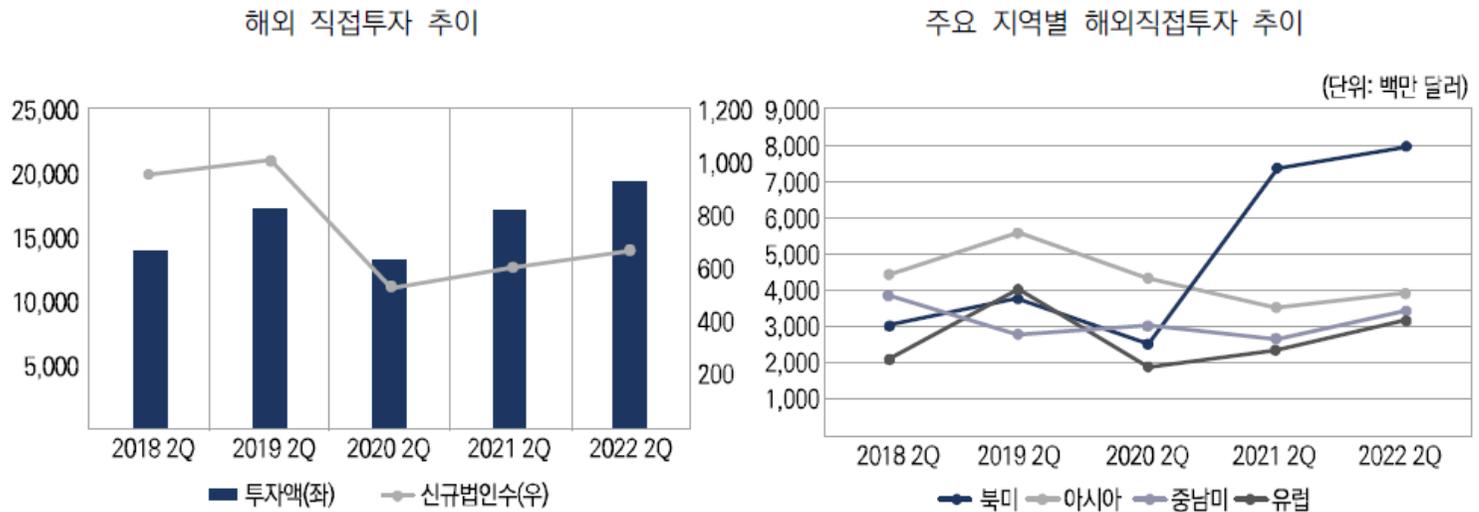
IV. 시사점

4 국내 투자 환경 조성

◆ 해외직접투자 현황

- ✓ 2022년 2분기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액(총투자기준)은 전년동기(170.3억 달러) 대비 13.1% 증가한 192.6억 달러를 기록
- ✓ 북미(79.4억 달러), 아시아(39.5억 달러), 중남미(34.0억 달러), 유럽(32.3억 달러) 지역 투자액은 모두 전년동기 대비 증가(각각 7.7%, 9.6%, 22.3%, 33.1%)

<그림 1> 2022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현황



자료: 수출입은행(2022)

IV. 시사점

4 국내 투자 환경 조성

◆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

- ✓ 반도체, 전기차 등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예상되어 투자액이 해외로 쏠리면 국내 투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 발생
 - *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총 7조 8천억 원을 투자해 8,1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,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공제 30%(IRA)를 받을 예정
 - ** 삼성은 20년간 총 250조 원을 투입해 11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, 세액공제 25%(미국 반도체지원법)를 받을 예정
- ✓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 마련
- ✓ 법인세, R&D 비용 등 조세감면, 보조금 지급 등 지원 확대

<표 12> 법인세, R&D 및 시설투자공제 국제 비교

	주요국	한국
법인세	15%(독일)	25%
R&D 세액공제	30%(프랑스)	2% (국가전략기술 30~40%)
시설투자 세액공제	전기차·배터리 30%, 반도체 25%(미국)	1% (국가전략기술 6%)

주: 1) 대기업 기준

감사합니다